

어린이 책꽂이

▲국사 시간에 세계사 공부하기=국사와 세계사, 과학과 사회, 지리와 역사 등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지식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통합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 펴낸 시리즈.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으로 국사와 세계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명쾌하게 해설했다. (윤진·1만2천원)

▲이야기 세계미술사=선사시대의 동굴벽화에서 피카소, 앤디 워홀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미술사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연대순으로 설명한 미술안내서. 서양 회화에 치우치지 않고 동서양을 아우른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세계 미술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주니어 김경사·1만2천원)

▲책의 미스터리 파일(전 2권)=작가 댄 그린버그가 자신의 아들 책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선물하기 위해 쓴 책이다. 복제인간, 영혼여행, 시간 여행 등 어린이들이 한번쯤 궁금해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1권 '비장 너머의 세계', 2권 '앗! 네 마음이 보여'에 수록돼 있다. (인어세상·각 권 8천원)

▲고우영 홍길동(전 2권)=고우영 화백 추모 2주기를 맞아 재출간된 만화책으로 20여년 전 당시의 글과 그림이 그대로 복원됐다. 고전 소설 '홍길동전'을 능가하는 탄탄한 스토리와 고우영 화백 특유의 해학이 한데 어우러져 읽는 재미를 준다. (자음과 모음·각 권 9천700원)

▲케이크 소동=흔적도 없이 사라진 케이크의 행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극. 어린 생쥐에서부터 웅센 곰 아저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거인·9천원)

인류가 꿈꿔 온 新世界는?

유토피아 이야기 이인식 지음

'유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사회지만 인류의 탄생과 역사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간의 정신사를 지배한 개념이다. 유토피아는 때론 현실에 대한 간접적인 부정이었기 때문에 권력자들로부터 배척되기도 했고, 고단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삶을 기억하는 '이상향'이기도 했다.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지난 1516년 저술한 '유토피아(Utopia)'라는 책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유토피아는 수세기 동안 문학, 사상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즐겨 다뤄진 주제다. 사회과학문화연구소 이인식 소장이 쓰고 엮은 '유토피아 이야기'는 플라톤의 '국가'에서부터 조지 오웰의 '1984'까지 9개 문학작품을 통해 인간들이 꿈꿔온 이상사회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정리한 책이다.



다양한 이상사회의 모습을 그린 '유토피아'는 현실에 대한 준엄한 비판이자, 역사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스'를 스케치한 삽화.

플라톤의 '국가'에서 오웰 '1984'까지

9개 문학 작품 통해 이상사회 조명

저자는 문학작품의 원전에도 해석을 붙이고, 작품이 사회에 미친 영향과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당대 사상가들과 문필가들이 그렸던 이상사회와 현실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명한다. 플라톤은 '철인정치'를 통해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다. 그는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사유재산을 물론 아내와 자식을 소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극단의 사회를 그리고 있다. 이 때문에 플라톤의 철인정치를 '절반의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사회의 불의가 불평등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 뒤 생산과 소유, 교육 등에 걸쳐 누구에게나 평등주의가 적용되는 '공유제 사회'를 설계했다. 베이컨은 '새로운 아틀란티스'에서 인간의 불행은 빈곤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발달된 풍요의 왕국을 그린다. 즉, 생산을 증대해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하는 과학적 유토피아를 구상한 것이다. 이 같은 조류는 프랑수아 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쳐면서 대체로 이룬다. 19세기 후반에 발표된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며'와 모리스의 '유토피아에서 온 소식' 등도 맥을 같이하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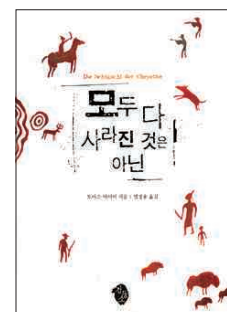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이상사회는 20세기 들어서 역방향으로 출구를 잡는다. 인간의 어두운 미래를 예견하는 반 유토피아, 디스토피아(dystopia)가 과학소설의 새로운 형식으로 등장한다. 예프게니 자마틴의 '우리들', 울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조지 오웰의 '1984'가 대표적이다. 자마틴은 '우리들'에서 디스토피아 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그는 국가가 인간의 욕망과 상상력을 말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강구하는 상황을 그림으로써 전체주의 사회의 도래를 예견했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를 통해 부화장지로 인간을 대량생산하고 집단양육하는 '끔찍한' 사회를 묘사했다. 조지 오웰은 '1984'에서 독재자인 빅 브라더(Big Brother)가 텔레스크린으로 모든 국민의 사생활을 끊임 없이 엿보는 등 극단적으로 사생활이 침해되는 미래사회를 제시했다. 20세기 후반에는 후기 산업사회의 이상향을 찾는 다양한 유토피아 형태들이 등장한다. 정원도시의 건설을 꿈꾸는 디자인 유토피아(design utopia), 환경오염과 생태 파괴를 저지하려는 에코토피아(ecotopia) 등 다양한 유토피아가 그것이다. (김영사·2만5천원)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토마스 아이어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어린 시절 주말의 영화 시간의 단골손님이었다던 서부영화. 광활한 평원과 카우보이, 인디언들, 포장마차에 탄 여인들과 아이들. 영화는 언제나 잔인하고 무지한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그 너른 황야에 백인들의 마을을 건설하는 것으로 끝났다. 또래 친구들은 '세인', 'ok목장의 결투', '아파치오새', '황야의 철인' 등에 등장하는 멋진 미국 남자들을 흠모했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자유롭고 풍요로워지기를 고대했다. 그러나 미국의 자유와 풍요가 수많은 인디언과 평원의 생명들을 학살한 결과였다. 걸 알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미국을 선택하고 자랐을 게 싫다. 어린 시절을 동두천의 기지촌 근처에서 자란 나는 미군부대 정문 앞에 있는 동상이 왜 하필 인디언의 머리인지 궁금했다. 철이 들고 미국의 인디언 침략사를 알고부터는 그 인디언 두상만 보면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인디언들의 땅에서 참 주인을 몰아낸 미국의 그 거대한 탐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것은 기우가 아니었다. 21세기에도 우리는 평택 대추리 황새울 벌판을 그들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토마스 아이어의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김동소)은 위대한 나라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인디언들의 삶과 역사를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1864년 11월에 있었던 샌드스크리프 대 학살 사건을 다룬 역사소설이며, 프레리펄원의 주인인 치치스타스

미국의 탐욕이 남긴 것



죽 올빼미소녀의 운명적인 삶을 다루는 성장소설이다.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이라는 제목은 아라파호족 인디언들이 11월을 가리킬 때의 수식어라고 한다. 올빼미소녀는 14살로 치치스타스 부족의 관습으로 보면 여성이 되는 나이이고,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미국군대가 점점 인디언들의 삶의 자리를 침범해 들어오면서 이웃 부족들 간의 영토싸움이 심해지던 때 치치스타스 마을을 이웃부족인 까마귀족이 쳐들어온다. 올빼미소녀는 까마귀족의 인질이 되고 그 곳에서 까마귀족으로 살아가게 된다. 올빼미소녀는 까마귀족이 백인들과 협상을 하고 치치스타스부족과 라코타족과 싸우는 것을 못마땅하고 보았지만 그곳에서 만난 '노란손'과 '달과함께달려'에게서 가족애를 느끼고 까마귀족 역시 중요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한 형제임을 깨닫는다. 까마귀족이나 치치스타스족이나 라코타족이나 모두 평화롭게 자연을 존중하며 살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한 것은 백인들이었다는 것도 깨닫는다. 백인들은 평화로운 인디언들에게 총을 팔고, 술을 전해주며 그들의 삶을 파괴해간다. 올빼미소녀는 마헤오가 자신을 프레리펄원의 인디언들을 위해 싸우는 전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올빼미소녀와 치치스타스족의 개전사들의 저항에도 프레리펄원의 인디언들은 끝내 삶의 자리를 빼앗긴다. 백인들의 탐욕스럽고 독점적인 문화는 이제 이 지구촌 곳곳을 점령했다. 우리는 어느 덧 자연의 소리를 듣는 귀를 잃고, 함께 살아가는 친구라는 걸 잊었다. 조물주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꿈을 풀 마음을 잃었다.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은 단지 인디언들의 역사소설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치, 진정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소설이다. 청소년들 뿐 아니라 꿈을 잃은 어른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이야기이다. 김중미 (동화작가)

시인 24명의 '통일시' 해설 덧붙여

백두산아... 김준태 지음

해남 출신 김준태 시인이 통일시를 엮어 해설을 덧붙인 '백두산아 훨훨 날아라'를 출간했다. 책에 수록된 시인 24명의 시와 해설은 저자가 월간지 '민족 21'에 '다시 통일을 여는 시'라는 제목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 동안 연재했던 것들이다. 책 속의 그림은 장순복 화백이 그렸다. 박봉우의 '휴전선', 조기천의 '백두산',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 고은의 '대동강 앞에서', 문익환의 '잡초대 아닌 잡초대', 김지하의 '지리산', 조명희의 '깃발의 고라' 등 통일을 주제로 쓴 시들이 저자의 감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저자는 "시를 입술에 올려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읊으면서, 우리의 통일이 어린 아이처럼 해맑은 웃음으로 찾아 온다는 것을 알아 차렸다"고 말한다. (글누림·1만5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평범한 사람들 일상이 더 위대하다

... 내 인생 최고의 날 스티븐 코비 지음

세계적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의 자기계발서.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의 원제는 '일상 속의 위대함(Everyday Greatness)'이다. 저자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과학자, 운동선수, 정치인의 사건이나 업적보다 드러나지 않는 범인(凡人)의 일상이 더 위대하다고 역설한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련을 헤쳐나간 63명의 광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가족을 부양하고 이웃을 돕는 농부, 매일 말씀을 부리는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 언제나 의지가 되는 정직한 교사 등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뽐낸 교훈들은 저자 스스로를 성공으로 이끈 평생의 원칙과 신념이기도 하다. (김영사·1만4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KÄRCHER 독일카처 특별기획전

... 적외선 감지 지능형 로봇청소기

이제 청소는 카처로보크리니에게 맡기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세요

- 혼자서 청소하고, 충전하고, 쓰레기까지 비웁니다. (충전시간:10분 1시간사용, 타사제품:1시간사용 2~3시간 충전)
- 바닥은 물론 카펫, 방과방사이, 문턱, 침대일 청소도 문제 없습니다.
- 흡입력, 최저소음, 쓰레기수집함, 충전재가동, 문턱통과, 추락방지 최고성능인정 (2006년 10월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시중 판매중인 12개사 제품)

카처는 수십년간 크리닝시스템분야에서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70개국 우수디자인상 수상

GOOD DESIGN, iF, red dot, Focus Know-how Silber 2005

RC 3000 로봇청소기, K 66 전기 빗자루, VR 6100 진공청소기, SC 902 소형 스팀청소기, SC 1122 디퍼렉스 스팀청소기, SC 1502 디퍼렉스 스팀청소기

문의전화 062-655-1022 http://blog.daum.net/karcher

국제외식산업(주) SINCE 1985

맛과 멋을 새롭게... 인터넷주소 국제외식

야외 결혼식 가능 (뷔페) / 관광버스음식 대접 (각종 안주류)

출장뷔페 예약상담 ☎. (062) 262-2278